

# 맘껏 즐기고 뛰어 놀며 문화의 꽃으로 피어나라

## 광주 곳곳 어린이 날 문화행사

- ACC 20일까지 'HOW FUN 4' 음악극 '여왕과 나이트게일' 공연 등 아시아 소재 체험·전시·공연·교육
- 미디어아트 플랫폼 홀로그램 체험
- 광주아트홀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 시립미술관 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



5. 6. 7일 문화전당 어린이극장 무대에 오르는 음악극 '여왕과 나이트게일'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지역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 4'를 5일부터 20일까지 ACC 실내의 공간에서 개최한다. (야외행사 5일~7일).

올해 4회째 열리는 행사의 주제는 '아시아 숲, 꽃을 피우다'. 미래 문화의 주역인 어린이와 가족들이 아시아 문화의 숲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뛰어놀고 함께 즐기며 문화의 꽃을 피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ACC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지역 예술작가 등이 참여하며 함께 만드는 축제를 선보인다.

'HOW FUN 4'는 아시아 문화를 한자리에 즐기는 장으로 아시아를 기억하는 '기억의 숲', 아시아를 만나는 '만남의 숲', 아시아의 미래를 상상하고 나누는 '나눔의 숲'으로 구성되며, 아시아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전시·공연·교육 등이 운영된다. 또 안데르센의 동화 '헨젤과 나이트게일'을 음악극으로 꾸민 '여왕과 나이트게일'이 열린다. 5일·6일 오후 2시, 5시, 7일 오후 2시 어린이극장.

이 음악극은 아동청소년 연극 연출로 저명한 영국의 '토니 그래함(Tony Graham)'과 인기 극작가 '필 포터(Phil Porter)'가 협력해 극단 하명제와 ACC가 공동 제작한 작품이다. 사람들 간의 진실한 소통과 이 시대 진실과 진리를 생각해 보는 작품으로 어린이날 가족이 함께 관람하면서 재미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공연이 될 것이다. 전석 2만원.

2018 어린이극장 봄 시즌 공연 '우스꽝스러운 테니스 커플'은 12일~13일 오후 3시 어린이극장에서 진행된다.

우스꽝스러운 테니스 커플은 테니스 혼합복식에 출전한 남녀 한 쌍이 말 대신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공연을 맡은 실브블레(SIVOUPLAIT)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리극, 팬터마임 전문극단으로 2004년 도쿄에서 탄생하여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다양한 축제에 초청돼 100회가 넘는 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01-4011.

ACC 어린이도서관 '2018 어린이책놀이터'는 4일부터 그림책 '고라니 뒷밭' 김병하 작가의 원화를 전시한다. '자연을 담은 그림책'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고운 선과 맑은 색으로 이루어진 대표작 다섯 권의 그림책 원화뿐만 아니라 더미북, 손톱스케치 등과 같은 그림책이 집필되는 과정을 함께 선보인다.

미디어아트 플랫폼에서 준비한 체크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어린이왕자의 선물'을 준비한 것.

'어린이왕자의 선물' 특별 패키지 티켓은 홀로그램 극장·미디어놀이터 입장권과 특별선물이 포함돼 있다. 홀로그램극장에서는 생텍쥐페리의 원작 소설 '어린이왕자'를 홀로그램 기술로 재현한 인형극 '어린이왕자의 선물'과 웹 게임을 소재로 한 판타지 홀로그램 뮤지컬 '메이플 스토리' 중 하나를 선택 관람할 수 있다.

특별선물은 '어린이왕자 거울 만들기'와 '포토존에서 어린이왕자 옷 입고 사진 찍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특별 패키지 티켓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인 1만2000원이다.

한편 오는 5일에는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에서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아카데미'가 무료로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1회차 아카데미는 김혜경 작가의 '전통미술과 뉴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감성표현'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 생까지 대상으로 하며 2인 1팀으로 총 4개팀을 모집 중이다. 수강생이 직접 그린 그림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편집하고, 분청사기 표면에 프로젝션 매핑기법으로 꾸민다.

2회차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안유자·변수진 작가의 디아렐티미 'LED 종이등 만들기'를 준비했다.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14명까지 선착순 접수 중이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드로잉 하듯 잘라 LED 전등에 붙여 완성한다. 선착순 전화 접수 062-670-7493.

미디어아트 플랫폼 패키지 티켓은 인터파크·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또는 현장 대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55.

이밖에 그림 형태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어

린이동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광주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3일~4일 오전 10시30분 광주아트홀.

친근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족애를 담아 어린이나 어른 모두를 위한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러가 이야기를 풀어주는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최덕식 빛소리오페라단장이 총감독을, 박미애 광주대 교수가 지휘·연출을 맡았다. 헨젤 역에 윤희정·장희정, 그레텔 역에 임영란·이현숙, 마녀 역에 조정희, 이슬요정 역에 양인영, 스토리텔러에 박정희가 출연한다.

지난 1999년 창단된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은 6편의 창작오페라를 비롯해 28차례 정기공연과 문화예술 소외지역과 복지 시설에서 430회 순회 및 초청공연을 가졌으며, '사랑·희망·나눔 콘서트'를 총 664회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7-7442.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에서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시립미술관 로비에서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을 열어 미술관을 방문하는 가족과 어린이들이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어린이 문화센터 앞 잔디마당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알록달록 아트벤치'가 펼쳐진다.

이밖에 2018 명품작가전인 '예결금관-한중 대표서예가 이돈홍·유정성 손수모' 전과 중진작가초대 송창 개인전 '66년-분단서정' 전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농성동에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인 하정웅미술관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의 동심을 자극하는 전래놀이 및 체험, 풍선아트, 비누방울놀이, 가면·컵 받침 꾸미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정웅컬렉션 '오일-zero(無)의 외침' 전 관람이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백미리내 작 '순환-하늘'

## 백미리내·장승호 2인전

31일까지 '예술공간 집'

추상회화의 젊은 패기를 보여주는 전시 '그림의 언어' - 백미리내·장승호 2인이 오는 31일까지 전남여고 앞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최근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돼 4번째 개인전을 가진 백미리내 작가와 뒤늦게 미술을 시작한 뒤 올해 대학을 졸업한 후 더욱 활발히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승호 작가는 한국화와 서양화로 다루는 재료는 다르지만 추구하는 예술에 대한 고집과 생각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백 작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순환적 삶의 행태와 자연만물의 생성, 소멸 등을 화폭에 담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을 거듭해간 백 작가는 자연스레 추상의 길로 접어들었고 '순환-울림', '순환-하늘' 등의 작품들에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장 작가는 그림은 언뜻언뜻 형상들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색과 붓자국의 흔적만이 화면을 장악한 추상회화다. 작가는 'see' 시리즈를 통해 항상 마주치게 되는 일상의 풍경들을 다채로운 색감과 붓의 움직임으로 포착해 냈다.

백 작가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은암미술관 레지던시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 작가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신예작가로 재학 중 어등미술에서 수상, 지난해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올해는 로터스 갤러리 신인작가에 선정돼 7월 중 전시를 열 예정이다. 일요일 휴관. 문의 062-233-33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29일...단체·개인 300명 선착순 신청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제6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오는 29일 오후 2~4시에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립나주박물관 제1·2 전시실과 중앙홀에서 진행된다. 전남과 광주에 거주하는 8~13세 어린이(초등학교 생)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공개되는 주제에 맞춰 전시품과 연계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단체(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250명과 개인 5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단체는 담당 교사가 신청서를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FAX 또는 E-mail(061-333-9872/ej027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61-330-7822, 783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고맙습니다 ❤️  
사랑합니다

##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 2018 Dinner Show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165,000원

(VAT포함)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벗님들